

제4차 유엔(UN)해양총회 2028년 6월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 대한민국, 칠레와 함께 해양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 유치 성공
【관련 국정과제】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12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총회의 결의로 2028년 6월 제4차 UN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의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며,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 약 1.5만 명이 참여*하여 해양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제4차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둔 2028년에 개최되는 만큼, 2030년 이후 새로운 해양협력의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2025년 6월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UN해양총회에는 정상급 인사 60여 명을 포함한 15,000여 명이 참석하여 해양오염 방지, 지속가능어업 등 해양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이행을 촉구

그간 UN해양총회는 포용적이고 균형있는 해양협력 논의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4월 칠레와 공동 개최를 합의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UN해양총회 개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유치가 최종 결정된 이번 UN 총회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하여 결의안을 설명하는 등 마지막까지 각국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 관행상 선진국에서 UN해양총회 본회의가 개최되며, 개도국에서는 총회 개최 전년도에 사전 고위급행사 개최 / 제4차 UN해양총회의 경우에도 총회는 2028년 6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며, 칠레에서는 2027년에 사전 행사 개최 예정

UN해양총회는 UN의 공식 국제회의인 만큼, 세부 의제와 총회의 구성은 앞으로 개최국인 우리나라와 칠레를 중심으로 UN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제4차 UN해양총회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기술, 산업, 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자 최고위급 외교의 무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12월 9일(현지시간) UN본부에서 UN해양총회를 담당하는 UN경제사회국(DESA)과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2030년 이후 UN차원에서 논의되는 국제 해양협력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기여와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4차 UN해양총회는 국제사회와 함께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쌓아온 책임있는 기여와 높은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며,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해양 분야 국제 논의를 지속 주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송종준 (044-200-5330)
		담당자	사무관	이찬미 (044-200-5395)
		담당자	사무관	김도윤 (044-200-5376)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길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박자현 (044-200-5395)
		담당자	사무관	최다빈 (02-2100-7785)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녹색환경외교과	책임자	과 장	박꽃님 (02-2100-7794)
		담당자	사무관	최다빈 (02-2100-7785)

□ 개요

- (의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고위급회의('17~)
- (구조) 본행사(본회의, 패넬토의), 특별행사, 부대행사 등 약 8일간 진행
- (참석) 193개국(UN 회원국) 및 UN기구, NGO, 민간 부문 등 약 15,000여명

□ 특징

- 수십여명의 정상, UN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
- 개최국, 논의 의제, 결과 등이 UN총회 결의안을 통해 결정되며, 회의 진행 역시 UN총회 절차와 형식에 준하여 이루어짐
- 회의에서 채택하는 공동선언문은 국제 해양 협력의 방향을 제시 하며, 해양 규범으로 작용

- * (1차) 행동촉구 선언문(Our Ocean, Our Future : Call for Action),
(2차) 리스본 선언(Our Ocean, Our Future, Our Responsibility)
(3차) 니스해양행동계획(Our ocean, our future: united for urgent action)

□ 개최현황(3년 주기 개최)

- * 관례적으로 개도국-선진국 공동개최 / 본행사는 선진국에서 개최하며, 개도국은 본행사 전년도에 자국에서 관련 행사 개최

회차	개최국	개최지 / 개최일자
1차	스웨덴·피지	유엔 본부 / '17.6.5.~6.10.
2차	포르투갈·케냐	케냐 나이로비 / '18.11.26~28 포르투갈 리스본 / '22.6.27.~7.1* * '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연기
3차	프랑스·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산호세 / '24.6.7~8 프랑스 니스 / '25.6.9~13